

[H 갤러리]

NOVEMBER COLLECTION

11. 1. – 11. 30.

PHILIP. HAN.

David Hockney(1937 ~ , 영국)

11. 1. 월.

데이비드 호크니는 Woldgate 11km 길과 숲을 7년 여 동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손으로 그렸다. 눈과 마음과 손은 화가에게 꼭 필요한 세 요소라며 말이다. 볼드게이트 숲에서 호크니는 대작을 꿈꿨다.

이 숲의 아름다움과 웅장함 그리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무쌍함의 순간을 화폭에 꼭 남기고 싶었다. 하지만 호크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순간을 남긴다고는 하지만 항상 기억의 편린이 작품이 된다는 것을 말이다.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했고, 마침내 호크니는 수련 연작 파노라마 기법을 띠 올렸다.

지베르니 정원의 모네처럼 호크니는 한 곳을 정해 이젤을 고정하고 너비 3m 캔버스 6 개에 볼드게이트 숲 사계절을 담았다. 그 크기가 경이롭고 웅장하여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2011 에서 선 보였을 때, 가디언은 이 작품은 과거에 대한 진보라고 평했고,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안절부절못하는 이가 있다면 이 작품은 최고의 인사이트를 전할 것이라고 했다.

무엇이 이토록 호크니를 잡아 끄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수많은 평론가와 블로거는 저마다 개성 넘치는 주장과 얘기를 전하고 있다. 그 많은 이야기는 항상 이목을 끈다. 한데 이번만큼은 이 작품 앞에서 내

시선은 눈과 마음과 손에 머물렀다. 그림을 가장 그림답게 그리는 중요한 요소로 호크니가 애용한다는 중국 속담이다. 이 말은 내게 질문이 되었다.

내 삶과 일 모두 눈과 마음이 중요한 점은 늘 깨닫고 매일 새롭게
차려입는 바다. 한데 나머지 한 가지는 오리무중이다. 눈과 마음 그다음으로
나는 무엇이 꼭 필요하고 그것은 또한 정말 내게 중요한 것일까. 11 월,
데이비드 호크니 Woldgate Woods 작품이 내 거울이 되었다.



Woldgate Woods, 4, 5 and 5 December 2006 (oil on six canvasses)



Woldgate Woods, 21, 23 and 25 November 2006



Woldgate Woods, 7 and 8 November, 2006 (oil on six canvas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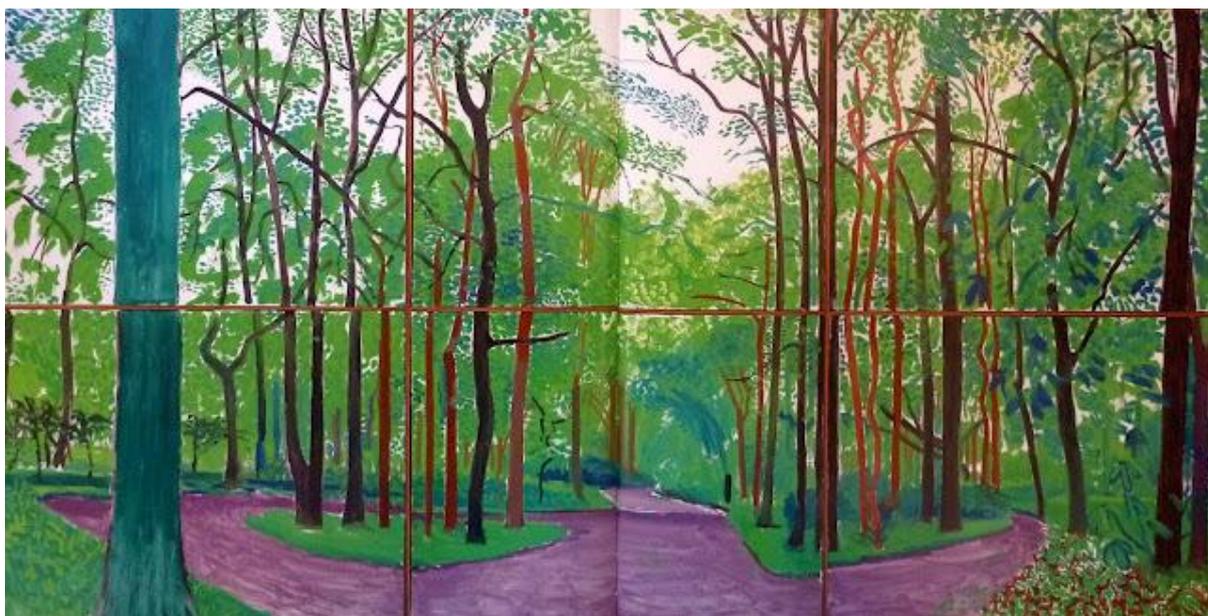
Woldgate Woods, 6 and 9 November 2006 (oil on six canvasses)



Woldgate Woods, 24, 25 and 36 October 2006 (oil on six canvasses)



Woldgate Woods, 26, 27 and 39 July 2006 (oil on six canvasses)



Woldgate Woods, 20 and 21 May, 2006 (oil on six canvasses)

David Hockney(1937 ~ , 영국)

11. 11. 목.

마치 지난 내 과거를 보는 듯도 싶고, 다가올 미래를 미리 보기 하는 듯 이렇게 저렇게 배열을 달리할 때마다 시시각각 떠오르는 기억이 이미지가 다르다. David Hockney(1937 ~ , 영국) 작품 Woldgate Tunnel 시리즈. 이 작품 시리즈 이름이 Tunnel 인 것은 볼드게이트 한 지점에서 바라본 언덕길까지 양옆으로 나란히 서 있는 나무가 아치형 터널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Woldgate Woods 시리즈는 숲의 온전한 사계절을 상징하고, Totem 시리즈는 자연과 인간 간 관계를 파괴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 Bridge 시리즈에서는 어떤 이정표와 같은 표상이 있었다면 이 Tunnel 시리즈에서 호크니 메시지는 이상과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Woldgate 11km 이 길은 오래전 로마 군이 닦았다. 로마 전차 만 다닐 정도 만든 길 폭과 쪽 뺀은 직선이 그 흔적이다. 사실 호크니는 애초에 풍경화를 그린다고 했다. 하지만 그림은 기억을 담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한 호크니이기에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길에서 호크니는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고 기억을 더듬던 차, 시선이 한곳에 머물렀다.

로마 군이 철수한 그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상 풍파란 풍파를 온몸으로 견디고 버티고 사라질 듯 떠난 듯 되돌아와 머문 숲한 사연이 만든 터널을 본 것이다. 아마 이 자리에서 저 언덕 너머를 보면 누구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샘솟고 이상을 되가져도 초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 셈이다.

길 양옆으로 즐비하게 선 나무가 출발점까지 환호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함성이 만든 이 터널, 호크니의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모든 작품은 시작은 바로 이 터널이 뿜는 표상이라고 해도 나무랄 이는 없을 것이다.

Woldgate 시리즈 후 The Arrival of Spring in Normandy 2020 에서 호크니는 터널 시리즈 상징인 이상과 희망을 더 강렬한 색감으로 표현한다. 야수파가 이루지 못한 진보를 이뤘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765.

PS: Tunnel 시리즈 8 편 그림 공통점은 Purple 이다. 소리를 들으면 색으로 표현하는 공감각 능력이 탁월한 호크니라면, 저 색을 그냥 쓴 것 같지는 않다.



Winter Tunnel with Snow, March 2006



Late Spring Tunnel, May 2006



Early July Tunnel,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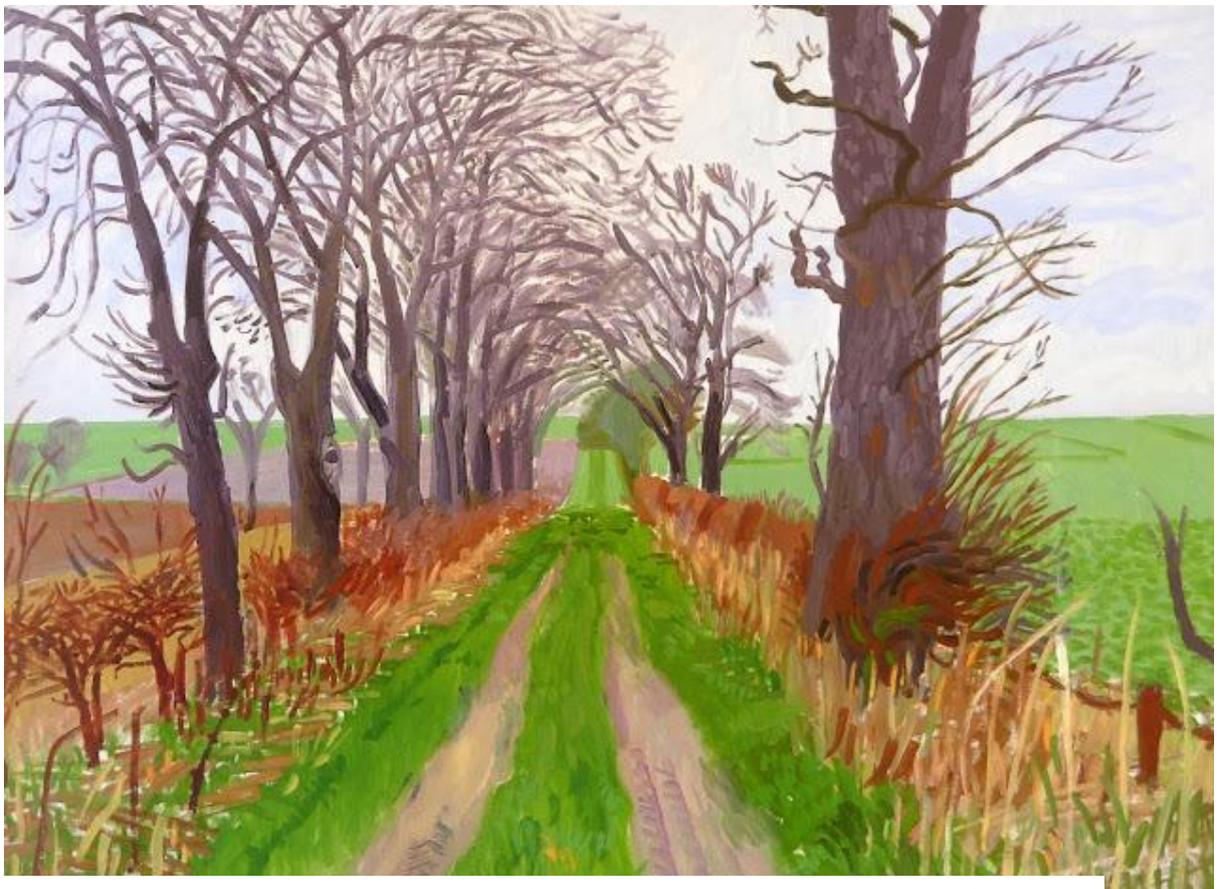
Tree Tunnel, August 2005



Early November Tunnel, 2006 The Tunnel, Early Autumn, October, 2005



Late November Tunnel, 2006



Winter Tunnel, November 2006 / Eirene. blogspot. Tuesday, 20 November 2012

David Hockney(1937 ~ , 영국)

11. 24. 수.

2011 년 그 해 4 월 Woldgate 여러 날은 이러이러했다. 30 여 일에 걸쳐 꽃과 빛이 수 놓은 볼드게이크 자연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이 광경 앞에서 침묵은 사치에 불과하다. 다만 이 아름다움을 표현할 재주라곤 예쁘다는 말뿐인 것이 원망스럽다.

그로부터 10 여 년을 보낸 2021 년 볼드게이트는 어떤 모습일까. 도시가스 공사가 있었다고 했고, 술하게 많은 방문객이 다녀도 갔을 4 월은 이 작품처럼 여전할까.

해서 든 생각이 데이비드 호크니는 볼드게이트를 이데아로 남겨두고 싶었던 것 같다. "아름다운 꽃이 떨어지고 아름다운 경치가 폐허가 되어도 아름다움 자체, 즉 미의 이데아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플라톤이 남긴 이 말을 믿고 따른 듯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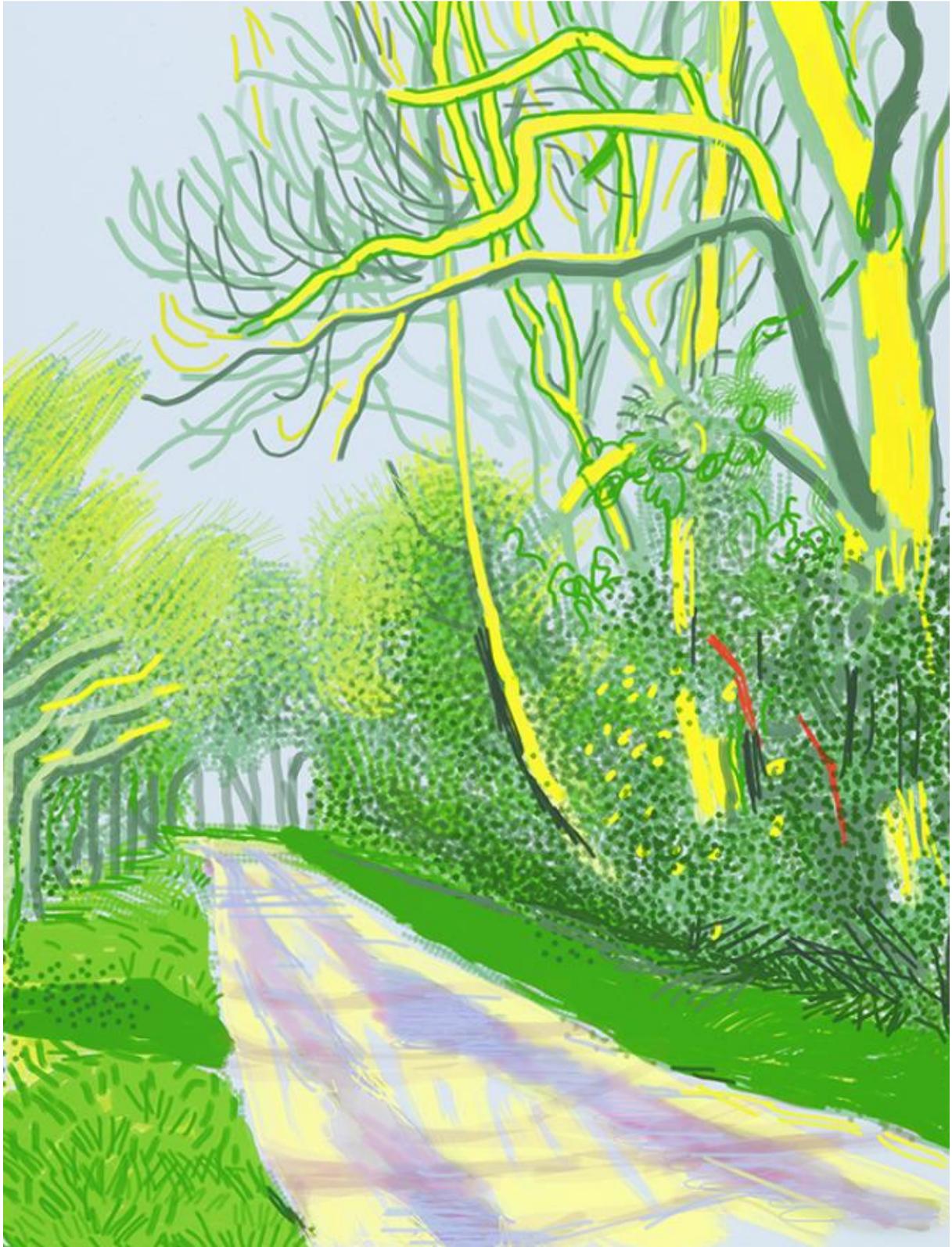
때로는 묵직하게 간혹 경쾌하게 움터 생동하는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하고 바라는 마음이 가장 유난한 4 월을 빗대 호크니는 볼드게이트를 미의 이데아로 둔 셈이다. 좋다. 내 삶 아름다움의 이데아로 볼드게이트 4 월은 딱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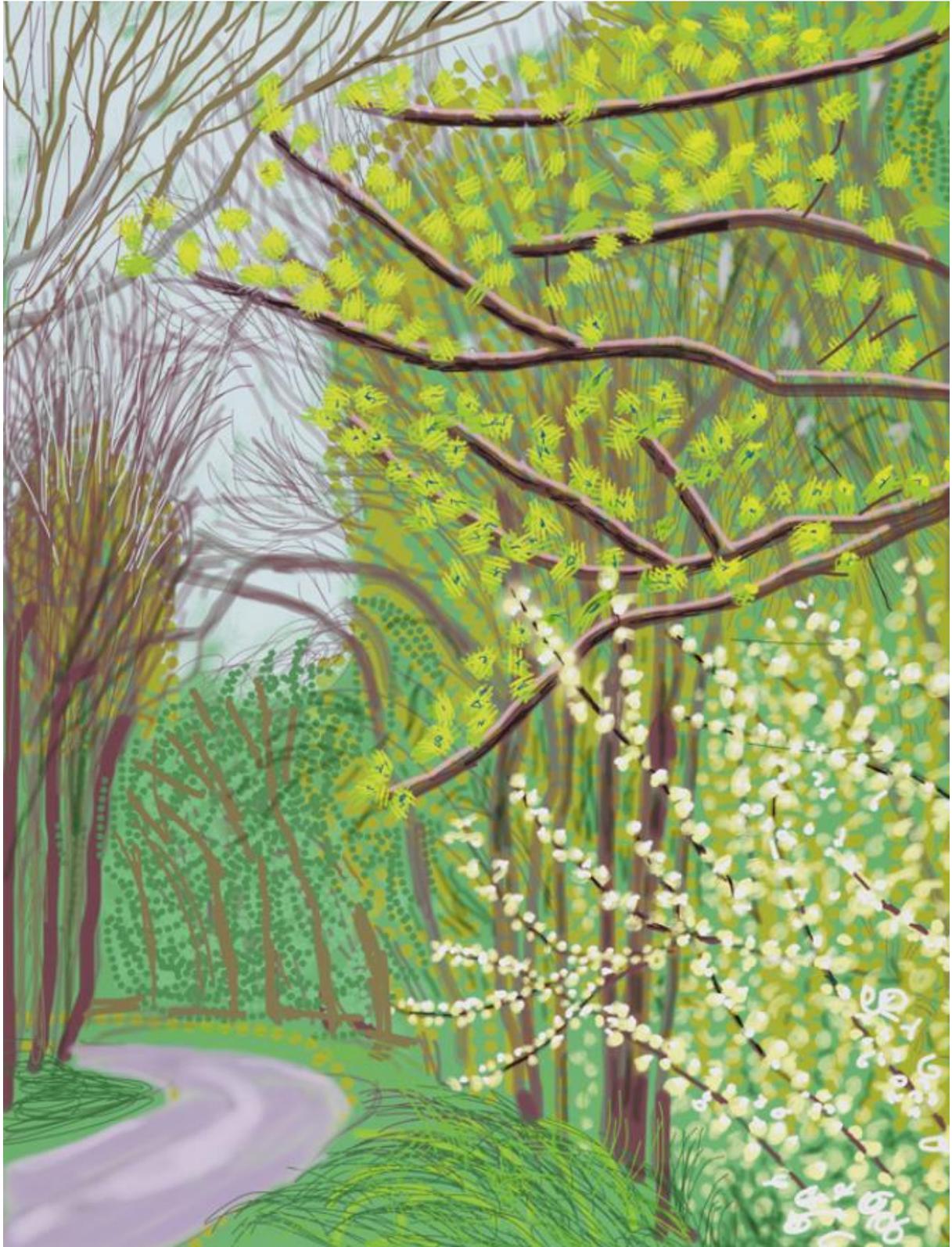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East Yorkshire in 2011 (twenty eleven) - 1.
April, 2011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East Yorkshire in 2011 (twenty eleven) - 12-1. April, 2011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East Yorkshire in 2011 (twenty eleven) - 12-2. April,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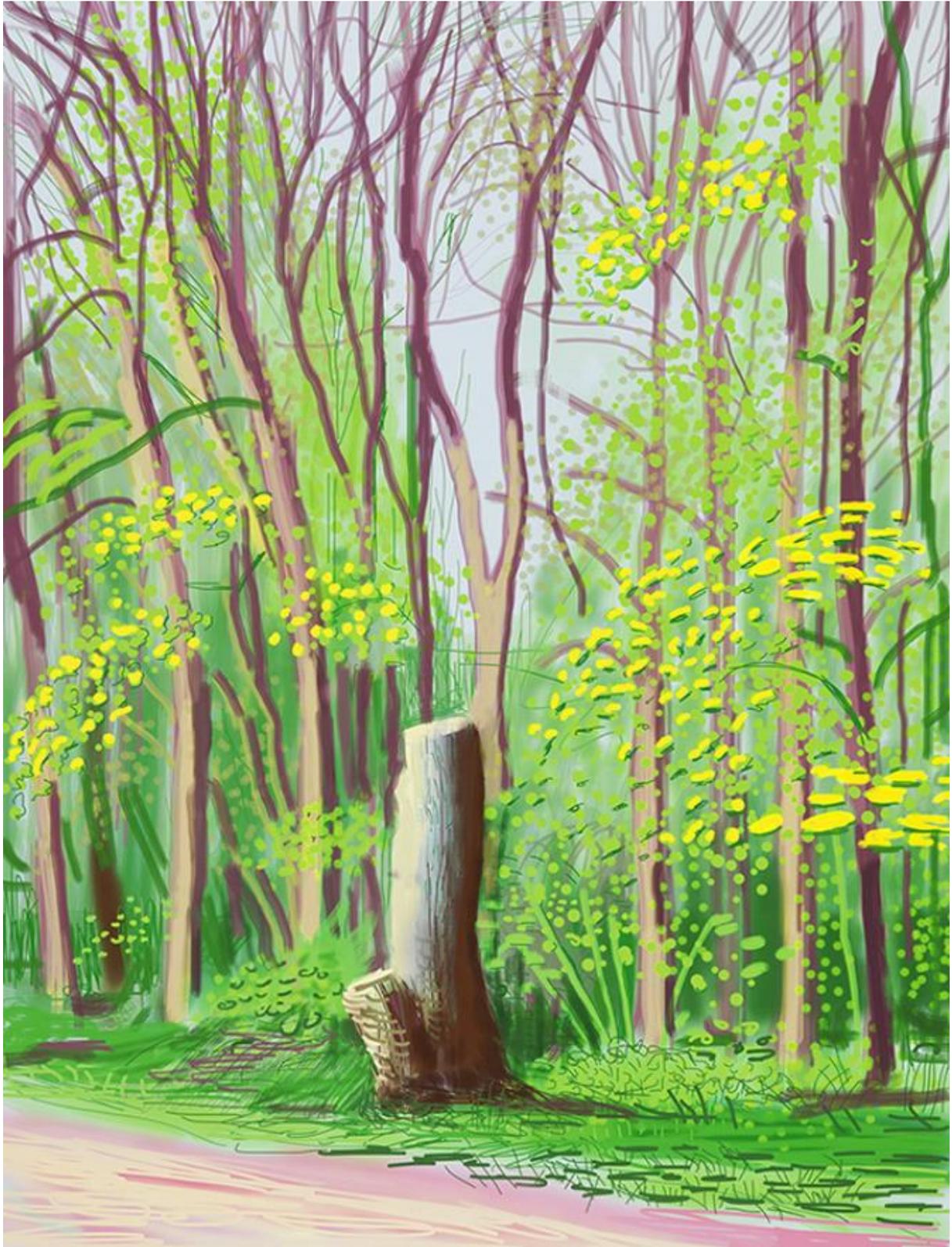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East Yorkshire in 2011 (twenty eleven) - 14.

April,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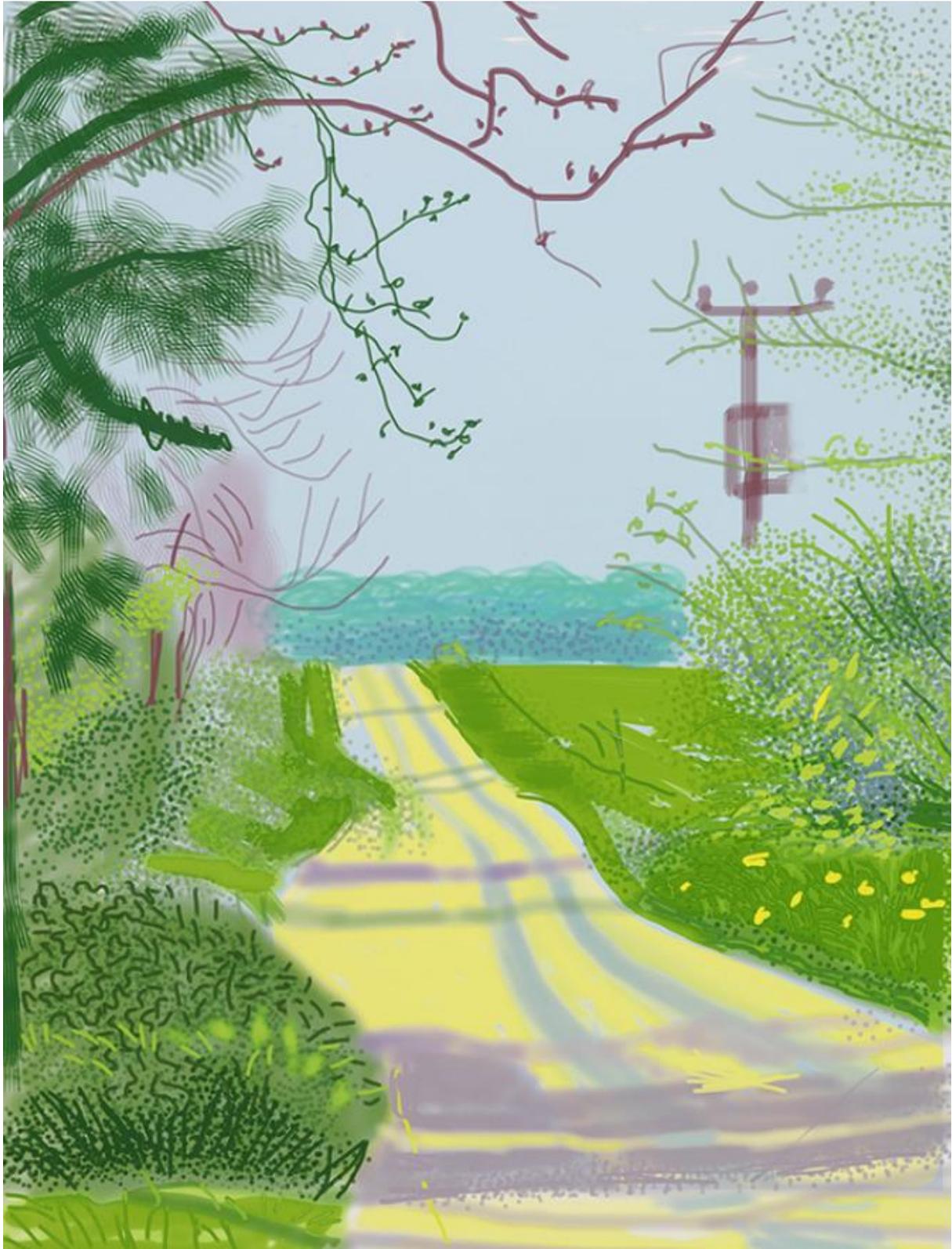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East Yorkshire in 2011 (twenty eleven) - 17.

April,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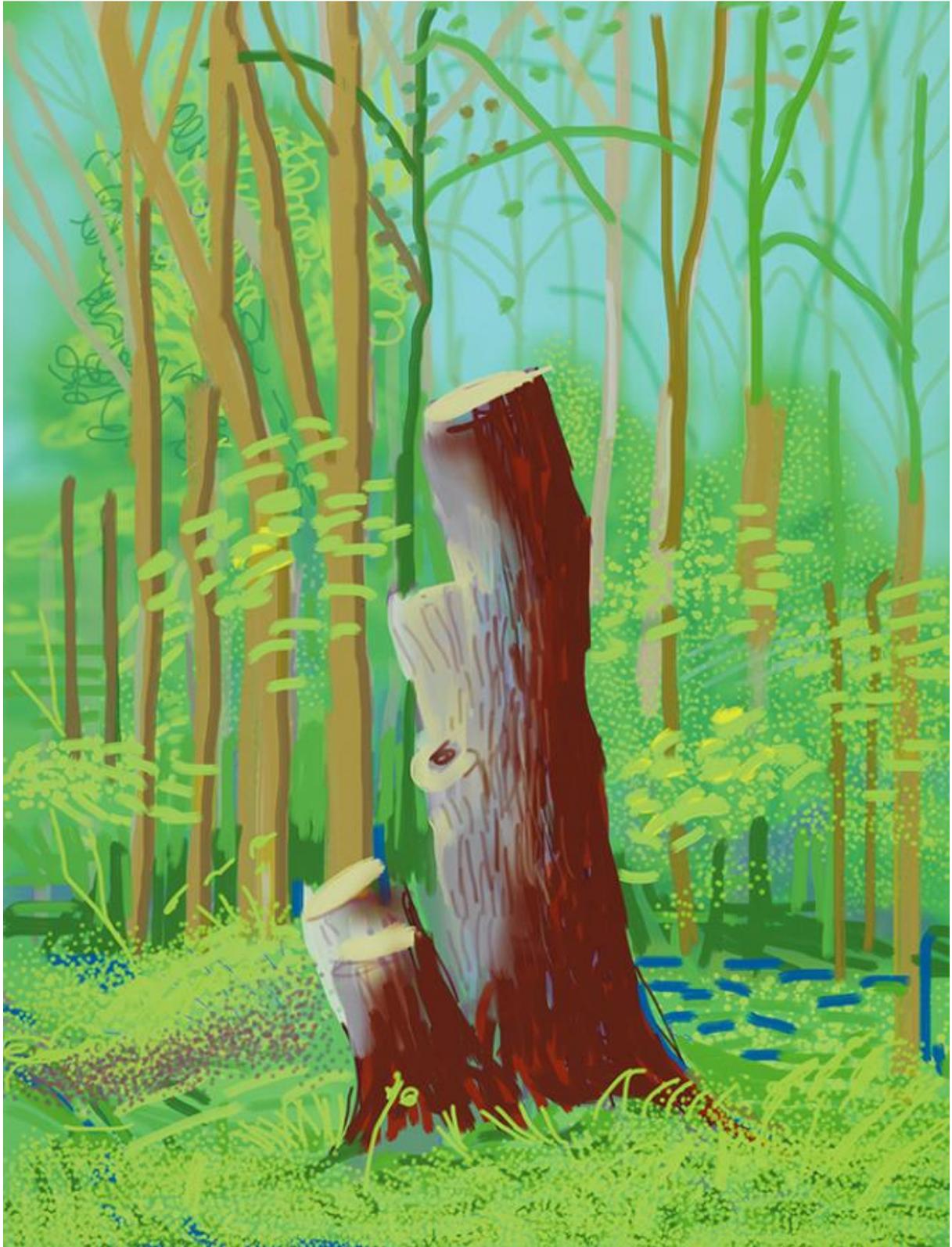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East Yorkshire in 2011 (twenty eleven) - 19.

April,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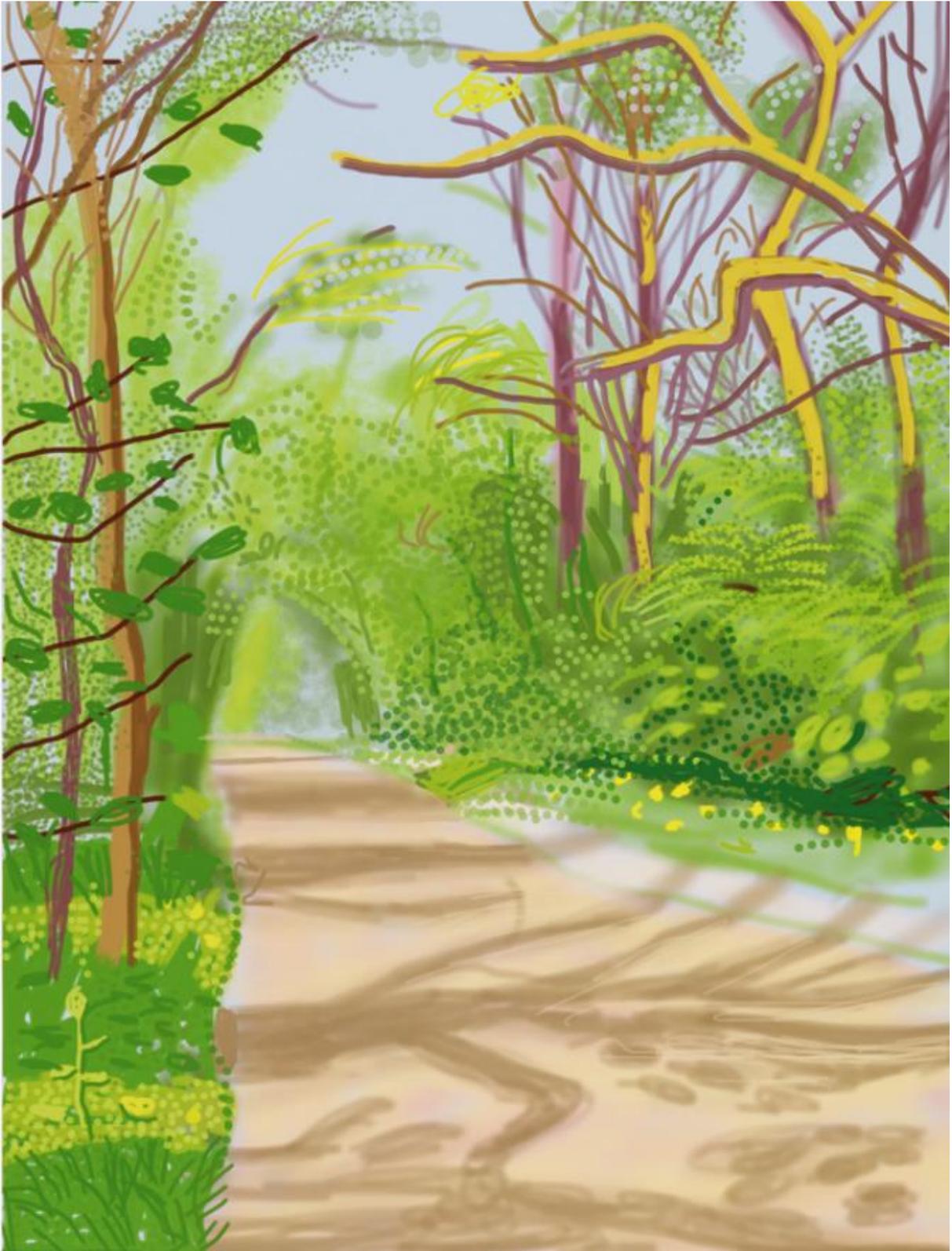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East Yorkshire in 2011 (twenty eleven) - 23.

April,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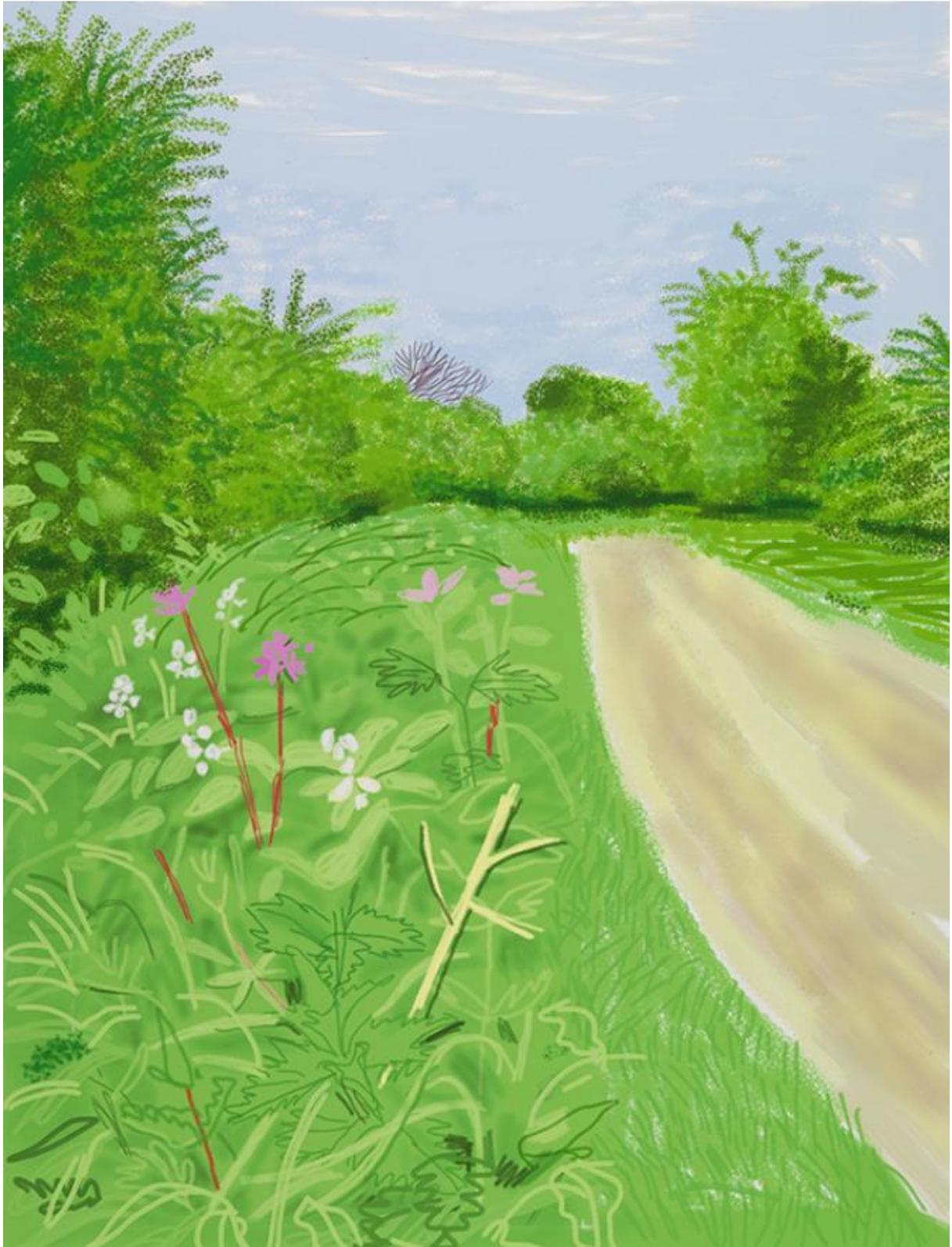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East Yorkshire in 2011 (twenty eleven) - 24.

April,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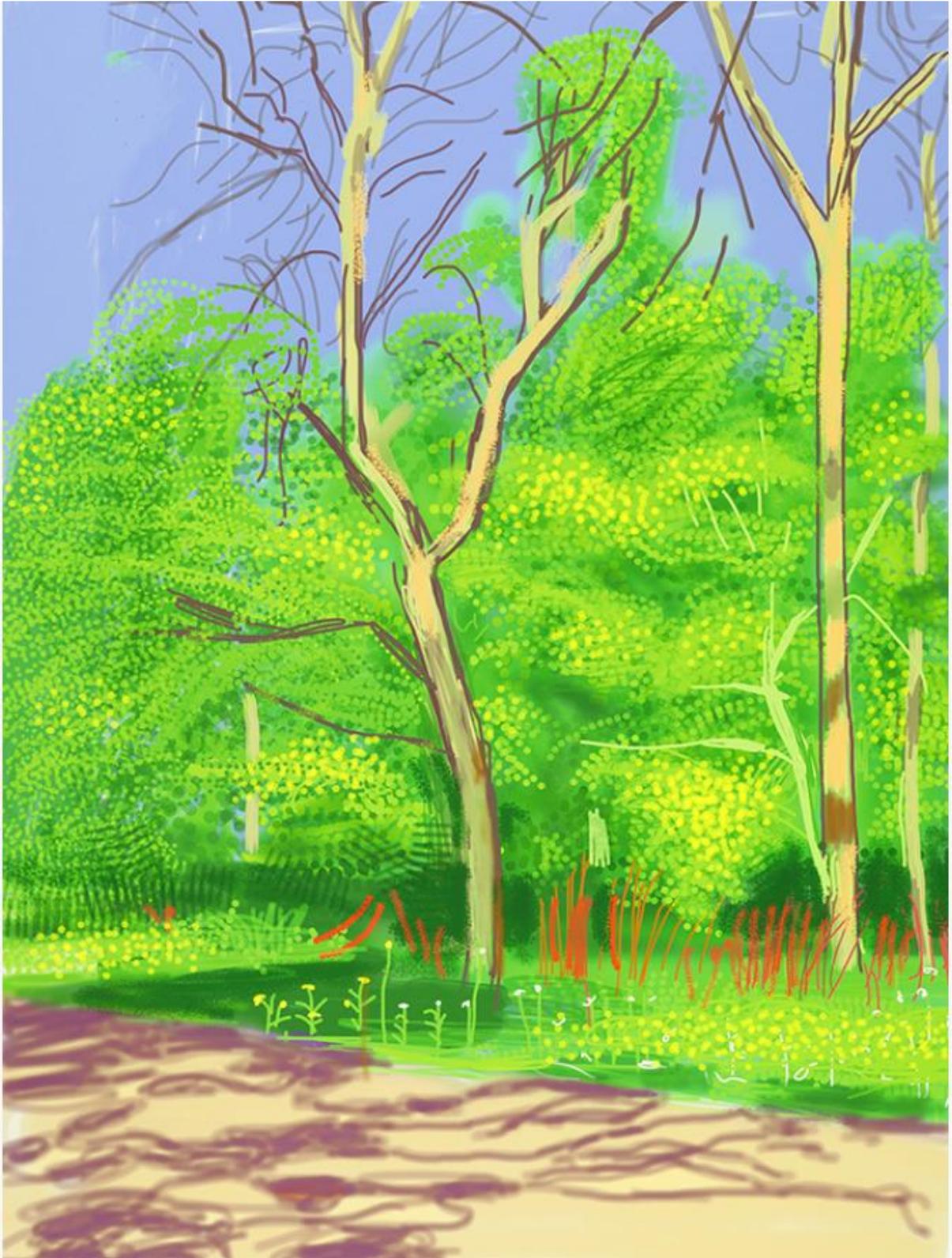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East Yorkshire in 2011 (twenty eleven) - 25.

April,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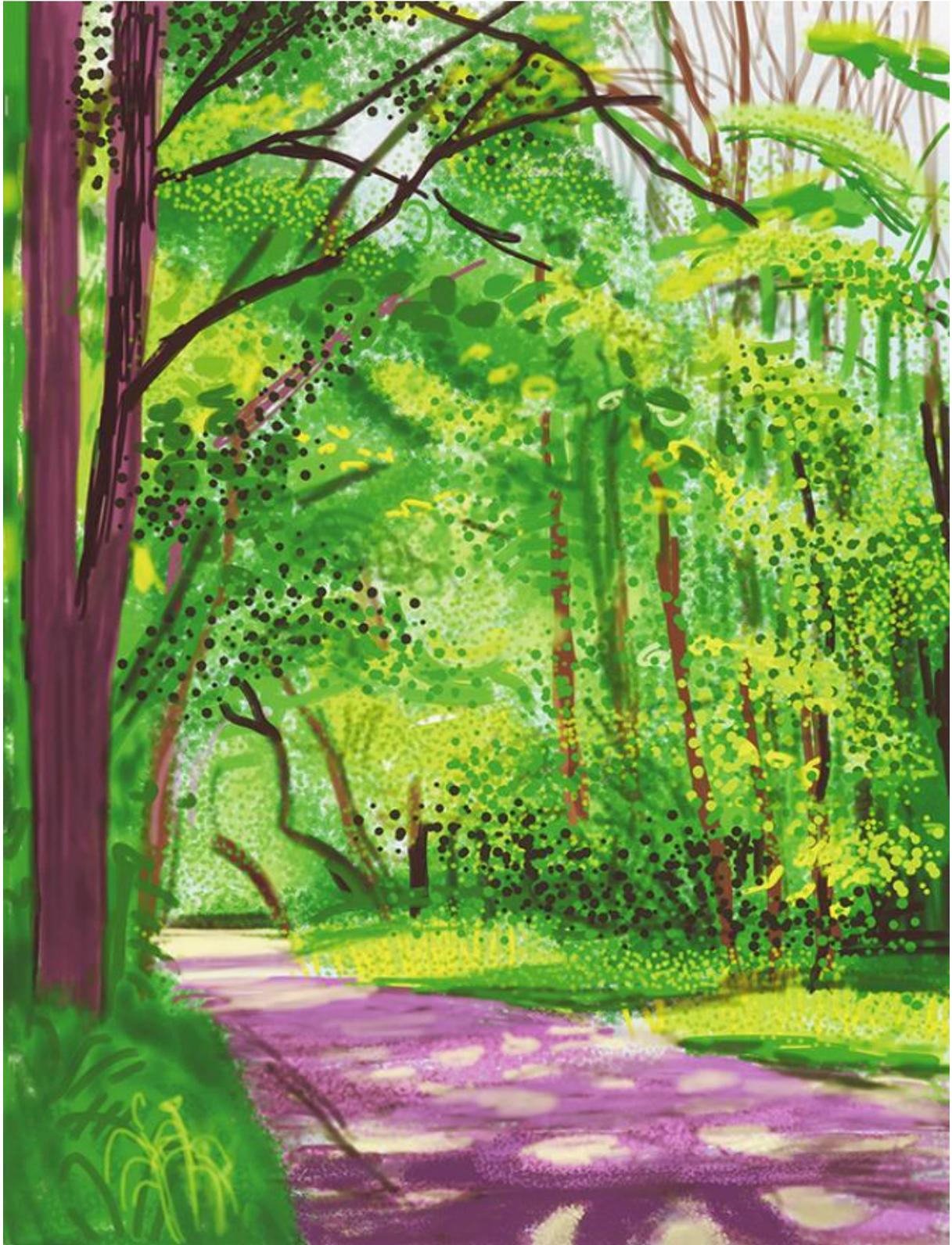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East Yorkshire in 2011 (twenty eleven) - 26.

April,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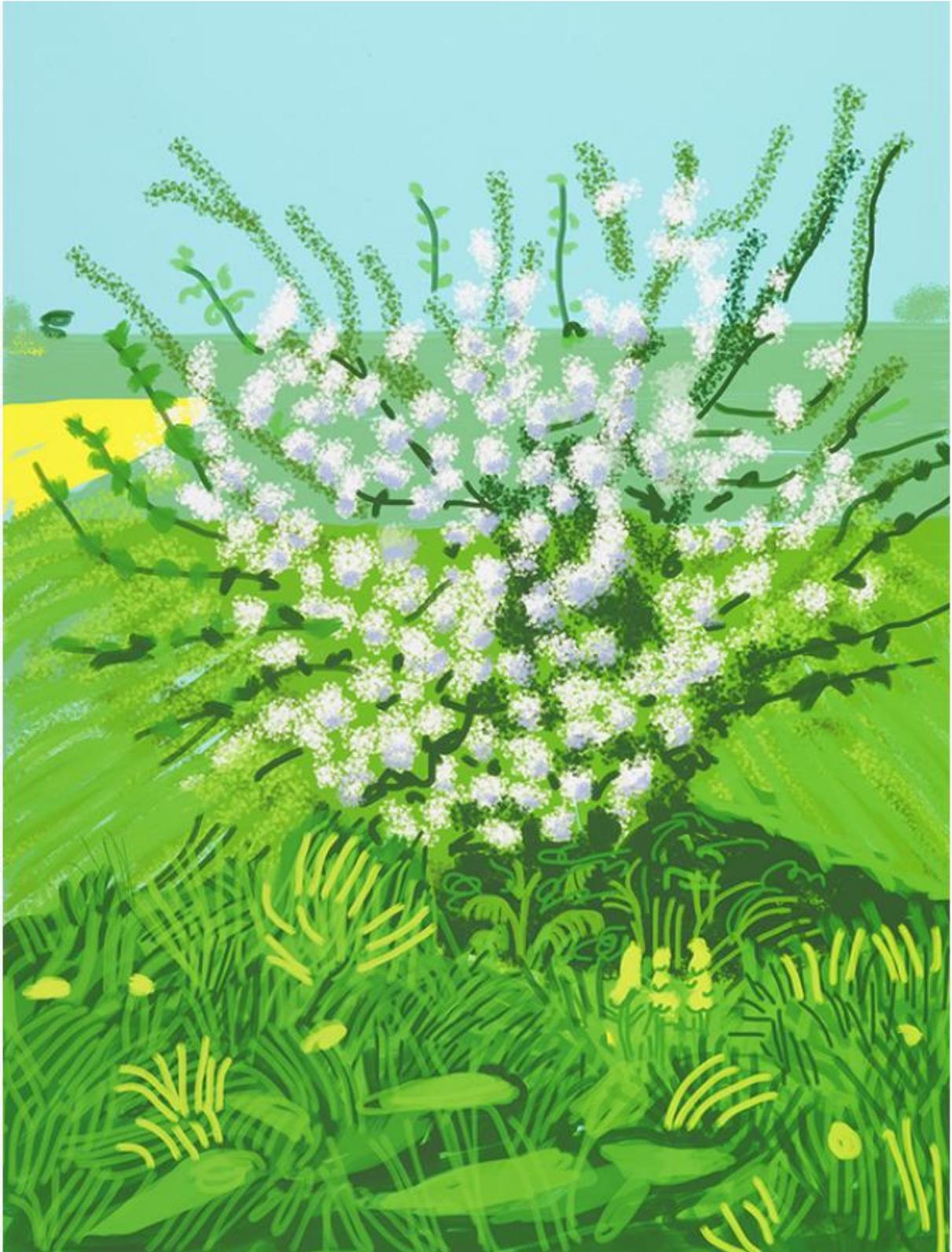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East Yorkshire in 2011 (twenty eleven) - 27.

April, 2011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East Yorkshire in 2011 (twenty eleven) - 28.

April, 2011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East Yorkshire in 2011 (twenty eleven) - 30.

April, 2011

Epilog

11 월 마지막 날 오후였습니다. 바람이 하도 성질내길래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하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내 고개를 끄덕 끄덕였습니다. 성질낼 만했다 싶었거든요. 곧 12 월이고 밤도 길어져 추운 날이 연일 계속 일 텐데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대롱대롱 춤을 추고 있는 나뭇잎을 보다 못한 바람이 마치 땡강 부리는 어린 동생 나무라듯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거들 일은 아니지만 나무 곁으로 가 한 마디 보냈습니다. 그간 애 많이 썼다. 네 마지막 춤 사위 잊지 않으나 그러니 이제 그만 바람 따라 가려무나 말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래전 이별 통지를 받은 내 모습과도 같았는지 더는 재촉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길로 제 자리로 돌아왔고 밤도 깊은 지금까지도 바람은 마지막 나뭇잎 하나라도 더 데리고 갈려는 지 요란을 떨니다. 아마 12 월 첫 아침에는 이 야단법석을 끝낸 둘 중 하나는 하얀 입김을 뿜으며 숨 고르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니 겨울입니다.

David Hockney 그림과 가을을 함께 했고, 겨울도 호크니 작품을 군고구마 삼아 지낼 듯도 싶습니다. 호크니도 Woldgate 겨울을 이처럼 보내지 않았을까 상상하니 킁킁 웃음이 절로 납니다. 볼드게이트 시리즈 중 12 월 작품이 상대적으로 적은 까닭이 고구마 구워 먹는 재미에 푹 빠져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탓이겠지 했더니만 혹시 정말 그런 것 아닌가 싶지 뭐니까.